

2022年8月1日

## 「第1回秀林韓国語作文コンテスト」の結果

この度は、第1回秀林韓国語作文コンテストにご応募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入賞作品を選考委員会にて決定いたしました。入賞者は下記の通りです。

### 記

最優秀賞－該当なし

優秀賞　－　橋本　　椋　「내가 받은 문화 충격」(仙台育英学園高等学校、3年)

佳作　　－　伊藤　　優希「문화 충격」(熊本県立東稜高等学校、3年)

以上

応募作品はどれも内容が忠実にしており、素晴らしいものでした。選考委員も驚くほどレベルの高い作品でした。

入賞作品の講評（韓国語版と日本語版）を載せますので、皆さんご覧ください。来年は、時期を少しずらして開催する予定でございます。皆様のご応募お待ちしております。

秀林外語専門学校  
秀林韓国語作文コンテスト事務局

## 심사평

선고위원 김경호

입상 축하드립니다.

「제 1 회 수림 한국어 작문 콘테스트」에 입상하신 두 학생 (하시모토 무쿠 씨와 이토 유우키 씨)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국어 작문 콘테스트에서는 세 가지의 테마가 주어진 가운데 두 사람 모두 ‘문화 충격’이라는 테마를 골랐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는 ‘일의대수-衣帶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나라는 그 정도로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말합니다. 아마도 가깝다는 것은 지리적인 것을 말하고, 멀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거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 시점과 배경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서로의 문화, 이를테면 다문화에 관한 이해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는 이유에는 상호이해의 결여가 배경에 있기 때문이겠지요.

문화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어느 집단의 사고 양식과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잘 관찰하면 가족이라도 구성원 각각의 생각과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이나 민족이 다르면 문화도 다른 것이 당연하겠지요. 최근의 세계는 국가나 지역이라는 경계를 넘어 지구 규모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구촌이라고 말할 정도로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하는 시대에 인류의 공존공영을 위해 요구되어지는 것은 타자에 대한 이해, 말하자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즉 다문화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두 입상자는 작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해 각각의 차이를 예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그리고 읽기 쉽게 서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국어를 쓸 때 조차 말하는 것보다 문장으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즉, 머리에 있는 생각과 내용을 모국어인 일본어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입상자는 자신들의 의견을 외국어인 한국어로 잘 정리해 썼습니다. 상당한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고위원회에서도 선고위원 전원이 ‘두 사람의 한국어 능력이 훌륭하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작문의 선고 과정에서는 주로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을 봤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작문 용지에 맞게 잘 썼는지 오자, 탈자, 구두점 등의 표기에 관한 것을 체크했습니다. 내용에 관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기승전결에 맞게 잘 썼는지, 단어와 어구의 선택이 적절한지, 읽기 쉬운 문장인지 등을 면밀하게 봤습니다.

하시모토 씨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의 차이를 면 요리 먹는 법과 술 먹는 방법을

예로 들면서 한국의 독특한 풍습에 관해 서술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집들이 선물로 화장지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는 것과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풍습을 일본의 풍습과 비교하면서 두 나라의 문화 차이에 관해 알기 쉽게 썼습니다. 단어 선택과 표현 등도 적절했고 막힘없이 읽혀지는 문장이었습니다. 몇 개의 오자가 있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토 시는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일본의 센터 시험의 차이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험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열정이 다르다고 확실히 말하고 있고 자신의 주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등학생이 자신의 전 인생을 걸 정도로 수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인 것, 그 배경에는 학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좀 딱딱한 느낌이었지만 두 나라 사이의 문화와 시스템의 다른 점을 예로 들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학율과 관련된 통계 등을 인용하는 등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쉬운 문장이었습니다.

선고위원의 감상으로는 입상자의 한국어 문장은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갖고 일본과 한국의 우호 교류의 가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 秀林韓国語作文コンテスト講評

選考委員 金 敬鎬

入賞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第1回秀林韓国語作文コンテスト」に入賞した二人（橋本 椋さんと伊藤 優希さん）にお祝いの言葉を差し上げます。

今回の韓国語作文コンテストには、三つのテーマが与えられました。ところが、二人共「カルチャーショック」に関するテーマを選びました。

韓国と日本の両国は「一衣帯水」という言葉で表現されることがしばしばあります。両国は、そのくらい地理的に近いという意味でしょう。ところが、両国の関係を「近くて遠い国」とも言います。おそらく近いとは、地理的なことを指し、遠いとは、心理的なことを言うことでしょう。距離的に近いが、心理的に遠く感じる理由は、何でしょう。色んな見方や背景があると思いますが、一つを取り挙げるとお互いの文化、言わば多文化に関する理解が不足しているところにあると思います。言わば、地理的に近いのに、心理的に遠く感じる理由には相互理解の欠如が背景にあるからでしょう。

文化とは、簡略に言うと、「ある集団の思考様式と生活様式」を指します。よく観察すると家族さえも、構成員、それぞれの考え方や行動パターンが違うことに気付きます。しかも、地域や民族が異なると文化が違うことは当然でしょう。最近の世界は、国や地域という境界を越え、地球規模で交流が行われ、地球村と言われるほどグローバル化が進んでいます。グローバル化する時代において、人類が共存共栄のために求められるのは他者に対する理解、言わば多文化に対する理解と配慮だと思います。

二人の入賞者は、作文の中で韓国の文化と日本の文化を比べ、それぞれの違いを例を挙げながら具体的に、読みやすく述べました。一般的に、母語できえ口で話す（話し言葉）より文章で書く（書き言葉）のは難しいと言われます。つまり、頭にある考えや内容を母語である日本語で文章としてまとめることは難しいはずですが、入賞者の二人は、自分達の意見を外国語である韓国語を使い、上手くまとめました。相当な韓国語能力を持っていることと推察されます。選考委員会でも、選考委員の全員が「二人の韓国語の能力が優れている」と評するほどでした。

作文の選考においては、主に文章の形式的な部分と内容的な部分を見ました。形式的な面については、作文用紙に合う書き方や誤字、脱字、句読点等の表記に関することをチェックしました。内容については自分の意見を起承転結によって、よくまとめているか、単語や語句の選択が適切か、読みやすい文章になっているか等を綿密に見ました。

橋本さんは、日本と韓国の文化の違いについてその例として麺料理の食べ方とお酒の飲み方を取り挙げながら、韓国の独特な風習について述べました。つまり、韓国では引越しお祝いにトイレトペーパーをプレゼントする風習があることと誕生日にわかめスープ飲

む風習を日本の風習と比べながら両国の文化の違いについて解りやすく書きました。単語選択や表現なども適切で、よどみなく読める文章でした。いくつかの誤字がありましたが、内容を理解するに支障はありませんでした。

伊藤さんは、韓国の大学修学能力試験と日本のセンター試験の違いについて詳細に述べました。韓国と日本の両試験システムは似ているが、熱情が異なるとはっきり言い、自分の主張を明らかにしました。つまり、韓国では名門大学に入学するために受験戦争と呼ばれるほど高校生が、全ての人生を掛けるくらい受験勉強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社会であることとその背景には学力を重んじる文化があることを指摘しました。漢字語（漢語）が多く使われたので、少し硬く感じられましたが、両国の文化やシステムの違いを取り挙げながら自分の主張を裏付けるために進学率の統計などを引用するなど、客観的で納得しやすい文章でした。

選考委員の感想としては、入賞者の韓国語の文章は、形式的にも内容的にも優れているものと評します。これからも他者に対しての理解や配慮を持って、日本と韓国の友好交流の懸け橋になってほしいし、応援したいと思います。

## 秀林韓国語作文コンテスト優秀賞受賞作品講評

高校生が外国語でこんな作文を書いたとは、自分の高校時代を振り返っても、分量にしても内容にしても驚きを禁じえません。いくつかつたない部分や理解の足りない部分はあるにせよ、それはさまざまなタイプの文章にたくさん触れることでおのずと修正されていくはずです。

具体的な例をひとつ挙げるなら、前途が開けるとトイレトペーパーがほどけるのを「同音異義語の『폴다』を利用した習慣」と表現されました。でも両者は同じ単語の解釈の違いでしかなく、同音異義語ではありません。辞書の訳語だけ見るとまったく違う語のように思えますが、韓国語の文章に多く触れるほど「폴다」というひとつの単語の持つさまざまな解釈とその根底にあるコアとなる意味に気づいていくはずです。それは他のどの単語についても同じで、韓国語を学ぶ楽しみでもありますね。それから「習慣」という単語選択も誤りだと思いますが、ここでは指摘するにとどめておきます。ご自身でよく考えて答えを見つけてください。

提出締切まで余裕がなかったためのミスかもしれませんが、全体をじっくり見直すことができていない点が残念でした。たとえば、最初の段落の「3 가지」と最後の段落の「두 가지」は、同じ内容なのに数字も表記もまちまちです。「첫 번째」の後に「두 번째」がなく「세 번째」になるのも同様です。おそらく3つの話題を書いたのに途中でひとつ削除し、それに関する表記を修正し忘れ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韓国語の実力とは関係ないことですが、むしろ人生のあらゆることに通じる大事な要素なので、けっしてゆるがせにせず、これからの人生においてもそれを肝に銘じ、希望に満ちた未来を切り拓いていってください。

萩原恵美(翻訳家)